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1

Rockland Lake Park Picnic 2021.6.17



2021년 골든클럽의 첫 피크닉은 거의 2년 만에 뉴욕주의 Rockland Lake State Park에서 가졌다. 섭씨 20도의 완만한 온도, 호숫가의 새로 나온 연두색 나뭇잎, 찬란한 초여름 햇볕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피크닉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푸짐한 음식 (우규환 회원의 사모님 우영순 님이 양념해주신 불고기, 정해민 회원이 후원해주신 생선회 등)을 나누며 마음이 푸근해졌으며 김정필 총무의 진행으로 블록빼기 게임, 빙고 게임으로 흥을 더했다.

이번 피크닉을 대성황으로 이끈 것은 예상을 훨씬 넘는 74명 (회원, 가족, 손님)의 참석이었다. 특히 골든클럽의 원로 회원들이신 40년대, 50년대 입학 회원들과 가족이 무려 47분이었다. 더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준 것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행사 참여에 뜸했던 이준행(공대48), 김종율(사대51), 임호순(공대52), 권태전(사대54), 최수용(상대55) 선배님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에서 골든클럽의 우수한 전통을 헤아려 볼 수 있었

다. 참석을 예정했던 진봉일, 최구진, 추재옥, 최진영, 최학주 회원이 여의치 않아 못 나오셔서 아쉬움도 있었다. 60년 이후 학번 회원과 가족은 22분 그리고 외부 손님은 5분이었다.

골든클럽이 회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한 해 이상 거의 갇혀 살았으면서도 처음 대면하는 기회에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친구 얼굴 보고, 따뜻한 말 한 번 나누기 위해 애써 참석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는다. 학교 졸업한 지 모두 반세기가 더 지났는데 이렇게 멀리 와 살면서도 서로 꼭 봐야 할 유대감을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모두한테 소중한 골든클럽을 지켜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다음 피크닉은 9월 30일(목)로 계획하고 있다. 선선한 날씨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골든클럽 7월 골프대회 안내

지난 4월에는 NJ의 Sunset Vally, 5월 동창회 골프대회는 NY Wallkill Golf Club, 6월에는 NY Philip Rotella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7월에는 Flushing /Long Island에서 오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Bronx에 있는 Pelham Bay Golf Club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으니 특별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7월 15일 (목요일)
 Teeoff: 1 pm (shotgun) 12시까지 등록 바랍니다.
 골프장: Pelham Bay Golf Course (718)885-1258
 870 Shore Rd, Bronx, NY 10464
 회비: \$100
 신청: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 Central Park 모임

장소: Metropolitan Art Museum 앞
 시간: 7월 16일 금요일 12시 정오

공원에서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장 인사말 및 로고 상 수여식 각 회원 간단한 소개 및 간단한 여흥, 각 그룹별 사진 촬영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과 음료수 즐기고 각자 좋은 시간에 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약대 동문회 임원회 개최

플러싱 칠성가든에서 6월 26일 토요일 약대 임원회의가 열렸다. 2021 뉴욕동창회 회장단을 맡은 약대 단합대회였다. 6시에 시작한 회의는 8시가 좀 넘어서야 자리를 일어났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배상규, 금영천, 이대연, 이용대, 이승우, 이종대, 김창수, 김문경 앞줄, 손갑수, 성기로, 최구진, 전병삼 순서이다.

편집팀 공지

- 오류 정정: 회보 4월호 4면의 "Keep Calm and Carry On!" 기사에 서점 "Barnes & Noble"을 "Barnes & Nobles"로 오기했음을 사과합니다.
- 오성 편집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금영천 회원이 신임 편집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6월 골프대회 보고



6월 10일 (목) 아주 화창한 날씨에 NY의 Philip Rotella 골프장에서 올해 들어 최대인 44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아주 즐거운 골프대회를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골프장 사정으로 shotgun을 하지 못하여 시간상으로 다소 지연이 있었지만 잘 따라주시고 이어서 30분 떨어진 Spring 식당에서 열린 푸짐한 저녁과 시상식에 적극 호응하여 주셨습니다. 골프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1. 대회 결과

골드티와 화이트/레드의 2 구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roup	상	상금	이름	Gross	Net	Over
1 League (Gold) 22명	1등	50	권정덕	90	18	-4
	1등	50	김광현	91	19	-4
	2등	30	한대진	93	21	-3
	3등	20	배상규	95	23	-2
2 League (White+ Lady) 22명	1등	50	천병수	81	9	-9
	2등	30	홍종만	100	28	-2
	3등	20	송현자	104	33	-1
Close pin	3	30	임호순			
	5	30	이대영			
	8	30	김광현			
	12	30	최병우			
	17	30	송용길			

2. 개별 성적과 다음 대회에 사용할 뉴헨디가 골든클럽 다음카페에 올려져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3. 골드대회 결산내역을 다음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수입 회비 \$4,400에 비하여 지출이 \$5,633.65로서 \$1,233.65가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Photo Gallery -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Rockland Lake Park 피크닉 만찬을 즐기는 회원들



송학린 회원의 즉석 퀴즈 문답



Jenga (나무 블럭 빼기) 게임을 즐기는 회원들 - 각 팀의 우승자에게 온 식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Jenga Game을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골프대회 후 통째로 빌린 Spring (봄) 식당에서 만찬과 시상식을 즐기는 회원들



6월 10일 골프대회를 마지막으로 Arkansas로 떠나는 김재경 회원과 함께한 64학번 동기 홍종만 이종대 윤현남 회원

동창회의 시간을 흐르게 합시다.

신임 뉴욕동창회장 김영천 (약대72)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Covid-19 Virus Pandemic으로, 경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어 고통을 받거나, 동문과 가족 중에 이 질환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모든 동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대의 이론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인간의 삶과 친숙한 세상 경험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처럼 시간 속에 살며, 시간은 흐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흐르는 물속의 역동적인 물고기의 시간과 움직이지 않는 물가의 만년 바위의 시간 의미가 다르듯이, 현실은 종종 보이는 것과 매우 다르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복잡하고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진 만물의 변환과 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힌두교 신화의 Shiva의 신성한 춤은 우주의 창조, 보존, 파괴, 환상 및 해방이라는 영원한 에너지의 다섯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정적인 신성한 에너지 흐름의 상호 작용을 상징합니다. 신화

에 따르면, Shiva가 춤을 멈추면 시간도 멈추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다시 우주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창회의 협력하고 봉사하며 친목하는 동문 간의 상호작용이 멈춘다면, 동창회의 시간도 멈추고, 흐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는 동창회 활성을 위해; 모든 동문들의, 동창회의 목적에 부합한 단체 활동들(음악회, 미술 전시회, 단과대학모임 등)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문 모두가 힘을 합치고, 멍쳐서 동창회의 시간이 흐르게 합시다.

어려운 시절에 동창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동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를 이끌어 주신 조상근 회장님, 정해민 이사장님, 또한 Golden Club의 홍종만 회장님과 김정필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년간 서울대 뉴욕동창회를 지켜보면서

전임 뉴욕동창회장 조상근 (법대69)

2009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한국에서 머물러서 뉴욕동창회에 문외한인 부족한 제가 갑자기 NY동창회의 중임을 맡아 5월 19일 동창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끝으로 사실상의 공식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정필 골프위원장의 노고로 작년 10월과 금년 5월의 골프대회는 별 지장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COVID-19 Pandemic으로 모든 활동이나 모임이 사실상 중단되어 2020년 연말 송년회는 예약하였다가 작년 10월에 예약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창회의 주류를 이루는 선배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에 혹시나 하는 걱정에 저 스스로 최대한 모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 느끼는 바는 모두가 다르지만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 몇 자 적어 올립니다.



- 동창회가 구심점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창들의 모임은 동창회가 모든 동창들의 구심점이 아니라 사실상 3등분 되어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뉴욕 서울대 동창들의 모임 중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골든클럽이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홍종만 회장께서 열심이고 이준형 명예회장님과 손경택 전 회장님,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어느 모임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다. 어쩌면 NY 동창회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대 동창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여기에 더하여 NY동창회가 헌신적인 선배님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의대 동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동창회는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2년 내내 의과대학 동문님들께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습니다. 물론, 각 단과대학별로 동창회가 조직되어 친목을 다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고 실제로 각 단과대학별로 동창회와 동창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의과대학만은 뉴욕동창회와는 두절이 된 상태로 동창회를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겠지만 동창회의 원로들께서 원인을 분석하여 서로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젊은 후배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래전 한국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많은 한국인이 고도로 선진화된 미국으로 와서 힘들게 사업을 일으키시던지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힘들게 학위를 받으시고는 이곳보다 열악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올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창회에서도 Senior Group의 참가가 동창회의 주축이 되었고, 젊은 후배들의 경우는 이민이나 학위를 위해 이곳으로 오는 숫자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감한 상태에서도 젊은 동문들은 (5면에서 계속)

2022년 골든클럽 한국 여행을 생각해보며

손대홍 (미대79)

저는 얼마 전 이곳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 홍종만 회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던 골든클럽의 한국 여행을 다시 계획해보자고 하시며 저에게 시기와 일정 등을 계획해서 알려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 그랬었구나, 그런 계획이 있었지...”하며 지난해 계획했던 일을 떠올려보았습니다. 2019년 말부터 여행 일정도 만들었고 뉴욕의 여행사와 단체항공권 금액도 확정하였고, 한국의 인 바운드 여행사로부터 일정에 대한 견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봄 한국 출장 때는 여행 대상지를 직접 다니며 지역마다 가볼 만한 곳을 방문해보고 호텔의 객실 수준도 확인하고 지역마다 유명한 맛집 식당에서 직접 시식해보며 2020년 가을의 9박 10일 일정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OVID-19 때문에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작년 한국 출장 때, 집사람과 함께 와서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강원도 등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동안 많이 바뀐 한국에 놀라기도 하면서 맛집도 다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골프도 치면서 예정대로 골든클럽 한국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집사람과 나누었습니다. 한국도 참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가볼 만한 곳도 예전보다는 참 많이 깨끗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호텔이나 교통편도 무척이나 싸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 행사 때문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로부터의 왕복 항공료와 렌터카, 호텔을 포함하여 1박2일을 \$130불 정도로 다녀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부산 해운대의 바다 전경이 보이는 달맞이 고개의 좋은 호텔을 하룻밤 \$55불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풍광이 뛰어난 경북 문경의 리조트 호텔도 1박에 \$60불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식당이 저녁 9시에 영업을 끝나고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카페는 아예 테이크 아웃 밖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사람이 적은 호텔과 식당 등에서 대접을 받는 기쁨도 작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시 오지 말아야겠죠.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9박 10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9박10일을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둘째, 어디를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서울에서 체류를 하고 서울대학교 본교 캠퍼스도 잠시 돌아보고 예전에 문리대, 법대, 공대, 사범대, 농대 등이 있던 자리도 지나쳐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나서 문경새재, 경주, 부산, 여수, 목포, 속초 등을 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글썄,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흥도를 가볼 수도 있고 어렵지만, 울릉도에 갔다가 독



도에 올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볼 곳은 너무나 많지만,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호텔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을지, 식사는 당연히 지역 맛집을 가야 하는데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못 드시는 것도 있을 테니 어떤 것을 드시면 좋을까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많은 의견을 들으며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회 되는데로 말씀 들으며 계획을 세워가겠습니다.

내년 가을로 계획하면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잘 견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는 조사를 오지 않을 것 같아 탈출의 유혹을 수도 없이 느끼며 어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오늘 뉴스를 보니 재외국민의 경우도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이 되면 면제를 해준다는 희소식입니다.

아무쪼록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는 2022 골든클럽 한국 여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많은 의견을 들으며 열심히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곳 한곳 다니며 챙기고 준비해보겠습니다. 물론 독도는 미리 가보기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4면 뉴욕동창회를 지켜보면서(계속)

별도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창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들만의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대체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창회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그들을 구심점으로 하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고, 잘 단합된 Senior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때 사실상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동창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간 베풀어 주신 동문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허유선, 이창길 동문님과 여러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델들

최진영 (문리55)



지난 6월 6일 자 뉴욕 타임즈를 보신 분들은 반면쯤을 차지한 기사와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문화, 풍습, 식품 특히 김치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의 기사는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기사인데 한국의 '소위 노년층 '들이 모델로 활약하는 모습과 이러한 새로운 현상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30대 초의 기발하고 참신한 한국 여성들이 이러한 새로운 문화와 기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기사와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패션 하면 의례히 20대 초의 완벽한 미인들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가 등장했습니다. 늘 미디어나 잡지를 보면 '50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다소 자존심을 상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100세 시대의 '50세'란 그 전의 '30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의 여동생이 65세가 되던 날, "언니, 나도 이제 노인이야."라고 해서 "무슨 소리야. 이제 너는 중년이야."라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뉴욕 타임즈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소위 노년층'이 놀랍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고 경제력도 있어 모델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0대 초의 한국 여성들이 세계문화와 기업계에

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가상합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생이 다 끝난 듯이 포기한 듯한 모습을 벗어나서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편집 註

1. 위의 '당당한 할머니, 할아버지' 제안은 정말 골든클럽 회원들에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1년 넘게 위축시켰던 Covid-19 pandemic도 기승이 꺾이는 지금은 우리도 cocoon에서 나와 남들과 교류도 넓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새의 elan처럼 재미있고, 약간 장난스럽게 추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아이디어 하나는 다음 NY 동창회 송년 party에 한 순서로 골든클럽 회원들의 Fashion Runway Show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들 당당하게 사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편집팀에 보내주시시오. 같이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 인용된 NY Times의 "Korean Grandparents Test the Age Barrier" 글은 Daum Net의 SNU Golden Club Cafe에 입력해 놓겠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일상

여주영 (전 NY 한국일보 주간)

2001년도 발생한 9.11 사태는 모든 미국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 일종의 경종이나 다름없었다. 1990년대 미국은 어느 때 보다 호황기를 맞아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붕괴한 후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이 강대한 미국에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 트윈 타워를 공격해 건물을 붕괴시키고 3,0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사람들은 이런 변을 당하고 나서야 모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다. 편안하고 안일할 땐 가족의 중요성도 몰랐고 삶의 진정한 가치나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도 몰랐다. 모두가 큰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다. 악몽의 시간이 지나간 지 벌써 20년, 우리는 그 사실을 어느새 까맣게 잊고 살았다. 우리는 여전히 흥청망청 살았고 기계문명에 흠뻑 젖어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

우리의 안일함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참담하고 어두운 일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온 세상을 덮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우리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마비시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코로나는 우리의 활력과 소통, 웃음까지 모두 빼앗아간 무서운 블랙홀이었다. 우리는 이제껏 아무 탈 없이 평온하게 지내온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뉴 노멀' - 그야말로 지난 1년은 고통의 한 해였다. 경제는 초토화되고 실직자가 수없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겨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 왕의 말처럼 이 어두운 상황은 결국 인간의 지혜와 투지, 노력으로 마침내 정복됐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의 개발로 상황은 급기야 반전되고 일상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코로나 감염률이 뉴욕 주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개월 전부터 감염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을 제외한 식당, 소매점, 종교 기관 등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달 28일부터 해제되고, 뉴저지도 지난달 25일을 기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시켰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벌써부터 우리들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서 곳곳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붓물이 터지듯 도로에 차가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음악회, 그림, 사진 전시회 등 예술단체들의 대면 활동이 지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비즈니스도 분야마다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정도면 경제 재개의 가속화에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소한 일상의 회복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될 때, 프란체스코 교황은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행위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매일의 일상에서 잃어버리기 쉬

운 소소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겠다. 우리의 보물은 소소한 것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다.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처지의 젊은이들이 간단하게라도 누릴만한 작은 행복을 찾으면서 나온 말이다. 소위 작은 행복이란, 갓 구워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커피에 찍어 먹는 즐거움이나 화병에 꽂힌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를 느끼면서 갖는 즐거움 같은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하겠다. 여기저기서 활기가 돌고 있으니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고 희망이 솟구친다.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노년층도 할 일이 없는가 세심히 살펴보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노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다.



Ernest Hemingway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거나 기권할 일이 아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노년의 나이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노인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간다. 그러나 노인은 3개월이 넘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 어느 날 운 좋게 대어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 올린다. 노인은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며칠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물고기를 뱃전에 매달게 된다. 하지만 상어 떼의 공격에서 노인은 청새치를 지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면서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앙상한 뼈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결과와 관계없이 청새치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투지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외친 명대사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과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인간의 강한 의지와 투지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패배'나 '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회원 명단 (110명 / 2021-06-20)

강교수	김상만	성기로	유무영	임호순	추재욱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한용웅 허용사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영덕	손갑수	윤선구	정도현	
강영선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정수일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윤현남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익성	손옥화	이강홍	정해민	
곽상준	김인형	송근숙	이대연	조상선	
곽선섭	김재경	송용길/ 송현자	이대영	주재양	
곽승용	김정필	송학린	이범선	진봉일	
구달회/ 권정덕/ 홍선경	김창수	신진식/ 이정자	이수호	천병수/ 천종화	
권영대	김태일	신응남	이용대	최구진	
권태전	김현중	양인회	이종대	최병우	
금영천	노용면	오성	이종석	최수용	
김광수	민준기	오순문	이준행	최순채	
김광현	박기환	오용호	이준희	최준희	
김동건	박준구/ 최숙희	오유섭	이행순	최진영	
김문경	박희병	오인석	이홍빈	최철용	
김문연	배상규	유규환	임도혁	최학주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80명 / \$8,000/ 2021-06-20)

강에드	김상만	남종현	윤선구	정해민	한태진 홍선경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교수	김익성	손옥화	윤종숙	조달훈	
강영선	김정필	송용길	윤현남	조승자	
계동휘	김한중	송현자	이강홍	주상선	
곽상준	김현중	송학린	이대연	주재양	
곽승용	노용면	신진식/ 이정자	이수호	진봉일	
권정덕	민준기	송근숙	이용대	천병수	
권태전	박준구/ 최숙희	양인회	이종대	천종화	
금영천	최숙희	오순문	이종석	최병우	
김광수	박희병	오용호	이 준	최수용	
김광현	배상규	오용호	이행순	최순채	
김동건	성기로	오유섭	이홍빈	최준희	
김문경	손갑수	오인석	임도혁	최철용	
김문연	손경택	유규환	임호순	한영수	
김병순	손대홍/ 유무영	유무영	정수일	한용오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23명 / \$10,100 / 2021-6-20)

곽승용300	손경택1,000	유규환200	임호순300
권정덕200	송학린1,100	윤선구200	정해민800
김광현200	신진식300	이강홍200	최수용500
김한중300	양인회200	이준행2,000	최철용300
노용면200	오용호100	이행순200	한태진500
성기로300	오유섭500	이홍빈100	

2021년 입학비 납부 명단 (4명 / \$800 / 2021-6-20)

남종현	금영천	김한중	윤종숙
-----	-----	-----	-----

2021년 발전기금 납부명단 (1명 / \$10,000 / 2021-6-20)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5-18)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참가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lkill 40명참가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 Philip J. Rottela Golf Club 44명 참석
	6월 17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4명 참석
7월	7월 15일(목)	Golf Outing -Pelham Bay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30일(목)	Picnic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1일(목)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구달회 (상대56)
- 권정덕 (의대58)
- 김영만 (상대59)
- 김태일 (공대68)
- 이국진 (사대51)
- 이성길 (치대60)
- 이수호 (대학원)
- 이용대 (약대63)
- 이종대 (약대65)
- 이홍빈 (의대57)
- 정수일 (대학원)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학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